

회복과 치유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 친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소식 9월 도약의 달

- 성장과 도약** 개인의 영성이 깊어지며, 한 몸 된 교회로 사역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격려하며 기도합니다.
- 선교주일**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 만남과 나눔의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 연합예배** 금주 금요 찬양예배는 샬롬장로교회에서 함께 드립니다.
- 미국 사회** 미국 대통령선거와 워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 찬송 이야기** 문서전도 매주 목요일판 '교차로'에 복음메시지가 실리고 있습니다.
- 나눔과 교제** 식사와 함께 친교,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집니다.

9월 예배안내 최내권 집사

9월 사역

연합친교(1) 만남/나눔 주간(1-7) 성장/성숙 주간(8-14) 노숙자 사역(15) 소금/빛 된 주간(15-21) 선교주일(22) 선교주간(22-28)

생일축하 이정운(30)

교우소식 구민 / 한국 방문 중

기도제목

- 성장과 열매:** 2024년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목표들이 이뤄지도록
- 영성:** 중보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생명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 가정의 기도 제목:** 사업의 회복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 가족:**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 교육사역:** 방학 중 자녀의 영적성장과 단기선교를 위해
- Oikos 사역:** 소그룹 사역으로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 선교지와 선교사:** 네팔/뉴욕(박은주 선교사)
- 이웃 교회들과 연합사역:** 샬롬교회/주찬양교회/찬송이야기 사역

중보기도 전성우 형제(최선운 집사 동생)의 건강회복, 상담과 치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소식

선교 소식 (네팔/뉴욕, 박은주 선교사)

- 뉴욕 문화/봉사/기도 센터를 통해 복음을 받아 들이는 이가 늘도록
- 사역팀들이 기쁨 속에 복음을 전하며 지지하지 않도록
- 가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맑은 사역에 충성하도록



주일 예배 기도

- 9/29 구은강 집사
- 10/6 김훈태 집사
- 10/13 김윤경 사모

교회위치 Location



800 E. Palatine Rd., Palatine, IL 60074
847) 691-7846
www.churchofservant.com

예배 및 모임안내

- 주일예배** Sunday 12:30 am
- 중고등부** Sunday 11:30 am
(뉴 라이프 교회 Partner Ministry)
- 금요찬양예배** Friday 8:00 pm
- 새벽 경건회** Tue to Fri 6:00 am
Saturday 7:00 am
- 주일 성경공부** Sunday 11:00 am
- 주중 성경공부(zoom)** Tue 8:00 pm
- 일대일 제자훈련** Monday 10:00 am

주일봉헌 인도

- 9/29 박진성/오정은 집사
- 10/6 구은강/최내권 집사
- 10/13 최내권/구은강 집사

도약의 달
선교 주간

선한 목자란? 첫째, 양을 잘 아는 목자 / 둘째, 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는 목자 / 셋째,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목자

첫째,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오랜 시간과 친밀함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는 것이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할 때, 그것은 양들에 대한 목자의 개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큰 사랑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둘째, 선한 목자는 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직 양 무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인도하여 한 한 무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혼자 힘으로 돌아올 능력이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셨다. 또, 우리가 양 무리에서 벗어난 길을 갈 때 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신다.

셋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친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도 양을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셨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천국에서 살도록 목숨을 내려놓으셨다.

이제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이 천국이 보장된 인생이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양 무리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결단할 때이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 기도 / 구은강 집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복음 10:11-18
“선한 목자 예수님”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결단의 기도

봉헌 박진성/오정은 집사

헌신과 열매
(봉헌/나눔)

★봉헌찬송 / 213장, 4절
“나의 생명 드리니”

세상과 삶으로

★찬양 / 찬송 502장

“빛의 사자 들이여”(1,3절)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

찬양과 기도

성경: 사도행전 15:6-11

묵상 제목: “주 예수님의 은혜로”

